

# 한 · 몽 가축의 출산문화 연구 試論

---

- 한국소와 몽골 양의 출산 관습과 금기조항을 중심으로 -

연 사 : 윤 은 숙

소 속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 한·몽 가축의 출산문화 연구 試論

- 한국 소와 몽골 양의 출산 관습과 금기조항을 중심으로 -

윤은숙(강원대 사학과 강사)

1. 문제제기
2. 한·몽 문화에 나타난 한국 소와 몽골 양의 위치
3. 한국 소와 몽골 양의 출산에 관련된 관습 및 금기조항
4. 결론

### 1. 문제제기

한국과 몽골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아시아 유목적 태반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그 후 오래 정착생활을 해온 한국인과 목축문화를 근간으로 유목생활을 계속해온 몽골인의 문화는 매우 다양한, 유사하거나 나뉠대로 상당히 변형된 관습과 풍속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목축 관행 또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몽골에서 목축문화의 근간은 유목이다. 유목은 건조지대에서 집합본능을 가진 有蹄類의 飼育을 주요한 경제수단으로 하는 생활양식을 지칭한다.<sup>1)</sup> 유목이라는 생활양식은 대체로 양, 산양, 소, 말, 낙타 등의 가축을 관리하고 사육하면서 풀을 따라 1년을 이동하는 생활이다. 단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절적 이동을 한다. 하절기에는 산의 경사면과 평원에 흩어져 있는 풀을 뜯고, 동절기에는 추위와 적설을 피할 수 있는 산의 남쪽 언덕과 계곡 사이에서 집단생활을 영위하며 겨울을 보낸다. 이러한 이동과 설치를 반복하는 중에 가축들, 특히 주요한 가축인 양들은 봄의 출산으로부터

1) 岩村忍 著, 周采赫 옮김, 遊牧史上에서의 몽골의 위치-유목의 개념정의 문제와 함께-, 『江原史學』 第4輯, 춘천, 江原大學校 史學會, 1988, p.105.

터 여름의 비육, 가을로부터 겨울에 걸친 도축과 임신을 한다.<sup>2)</sup>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생활은 거의 이러한 수순에 의해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목민들의 계절적 이동은 양떼를 위한 이동이라 할 수 있다. 『몽골비사』 118절에 의하면 여름의 첫 달 테무진(Temüjin)과 자모카(Jamokha)가 동영지를 떠나기 위한 이동을 결정할 때 자무카는 “산에 바짝 붙어 설영하자. 우리들의 말치기들이 오두막으로 가게 하라. 시내에 바짝 붙어 설영하자. 우리의 양치기, 새끼 양치기들을 골짜기로 가게 하라.<sup>3)</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동영지인 산지에 머무른다면 말을 먹이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이동하여 계곡에 머무른다면 양이 풀을 뜯기에 좋으므로 양치기에게 적합하다는 것으로, 이동은 양떼에게는 적합하지만 말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된다.<sup>4)</sup> 유목민들은 대략 4월 말경에 동영지에서 이동을 시작하는데, 이에 앞서 양들은 3월말 4월 초순경에 출산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4월 말이 되면 분만한 어미 양과 새로 태어난 새끼양의 건강상태는 최악이 된다. 이 시기는 양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시기로서 목초의 절대 부족으로 양의 폐사율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목축민들은 이들 양떼에게 새로운 풀을 찾아 주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몽골 초원의 생활은 인간과 가축 그리고 초원의 삼위일체적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가축에 의존하고 가축은 초원에 의존하고 초원은 다시 인간에 의해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sup>5)</sup>

목축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몽골에서 양은 몽골을 대표하는 가축으로서 목축민들의 특별한 애정과 존중을 받아왔다. 또한 농경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이지만 짐승이기에 식구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있는 입으로서 식구나 다름없기에 ‘生口’라고 불리었던 소는 농경생활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의 한우는 1638년 동몽골에서 수입한 몽골 소의 후예이다. 이 시기 소를 수입한 이유는 1636-1637년 사이에 발생한 牛疫으로 朝鮮의 소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몽골 소를 수입한 대가로 몽골에는 담배를 지급하였는데 이로 인해 몽골에서는 현재까지 몽골만의 독특한 담배문화가 남아 있다.<sup>6)</sup>

2) 杉山正明지음, 이진복 역, 『유목민이 본 세계사-민족과 국경을 넘어-』, 서울, 학민사, 1999, p.31.

3) 유원수역주, 『몽골비사』, 서울, 혜안, 1994, p.82.

4) Б.Я. Владимирцов著, 주채혁譯, 『몽골사회체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p.55-56.

5) 米内山庸夫, 『蒙古草原』, 東京, 改造社, 1998, pp.107-108.

6)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족』, 서울, 민속원, 2001, p.512.

몽골의 양과 한국의 소는 양국 목축문화의 주요부분을 형성해 왔다. 특히 이들 가축과 관련된 출산문화는 각각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으며, 양국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유목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몽골의 양과 농경의 근간이 되었던 한국 소의 출산에 관계된 관습과 금기조항을 중심으로 試論적으로나마 한·몽 양국 가축의 출산 문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 2. 한·몽 문화에 나타난 한국 소와 몽골 양의 위치

몽골의 목축은 양, 염소, 소, 낙타, 말 등을 중요한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가축을 농경사회의 5穀과 같이 몽골의 5畜이라고 한다. 5축 중 몽골 양의 주종을 이루는 면양은 전체 사육두수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산양은 30% 정도이고 소는 12%정도이고 말과 낙타는 각각 9%와 1%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전체 가축 중에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몽골 양의 제1의 특징은 추위를 견디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몽골 양의 긴털과 지방은 추위에 대한 耐寒性을 가진 체질을 형성하였는데, 양의 긴털은 몽골인들에게 펠트와 의복을 제공하고 축척된 지방은 양고기의 맛을 좋게<sup>8)</sup> 하므로, 양은 몽골의 기후와 문화 조건에 적합한 가축임을 알 수 있다.

『몽골비사』 124절에 의하면 1186년 테무진이 칭기스칸(Chinghis Qa'an)으로 1차 추대되었을 때 휘하의 추종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였는데, 칭기스칸을 도와 無籍民들을 모아 천호를 구성하였던 데게이(Degei)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살 난 거세 양의 국을 만들어 아침에 안 모자라도록 하겠습니까. 밤참에 안 늦도록 하겠습니까. 얼룩박이 암양들을 길러 수레 밑에 가득하게 하겠습니까. 담황색 암양들을 길러 울타리가 가득하게 하겠습니까. 게걸스럽고 천덕스러운 저는 양떼를 쳐서 곤자소니를 먹겠습니다.”고 하며 양치기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sup>9)</sup>

위의 『몽골비사』의 기술에 의하면 양은 몽골인의 생활에서 주식을 제공하

7) 김형호, 은등 삼발훈데브, 라구아 밧슈리, 몽골의 축산과 정책, 『한국국제농지』 Vol10, 서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1998, pp.28-29.

8) 米内山庸夫, 앞 책, p.190.

9) 유원수역주, 앞 책, p.90.

여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고, 양떼들은 목축민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었음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은 몽골의 5축 중 뜨거운 입김을 가진 가축이라는 ‘할룽 호쇼테 말(Haluun Hushuutei Mal)<sup>10)</sup>’로 불리면서 몽골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은 신에게 바쳐지는 신성한 가축이다. 양을 바칠 때는 말을 바칠 때처럼 양의 네발에 기름을 바르고 목 등의 털에 흰 천을 맨다. 그리고 양을 도살하는 사람의 옷 안에 깨끗한 새 지폐를 싼 푸른 천을 넣어준다. 푸른 천에 돈을 넣어 주는 것은 하늘의 신에게 선물하는 의미이다. 무당이 한동안 巫歌를 낭송한 후에 양에게 젖을 먹인다. 이때 양에게 젖을 먹여 한해의 목축에 대한 점을 쳤다. 양이 젖을 잘 마시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 젖을 먹이고 남은 젖을 양의 이마에 부었다. 이어 칼로 양의 가슴부분을 찢어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등에 있는 맥을 끊어 양을 죽이고 각을 떴다.<sup>11)</sup> 풍요와 가축의 번성을 기원하는 목축민들의 열망은 이렇게 정결한 숫양을 바치는 의식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몽골에서 양은 가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신에게 바쳐지는 성물로 인식되어 왔다.

양이 이처럼 몽골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농경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소가 농경민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목민인 몽골인들의 일상생활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몽골 유목민이 거주하는 이동식 가옥인 게르는 양털이 원료가 되는 펠트와 목재로 이루어져 있다. 펠트는 몽골어로 ‘에스기(Esgii)’라고 부른다. 양털은 1년에 2번 깎는데, 털 깎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양이 살찌기 시작하는 6월 중순에 실시한다. 털깎기는 미리 길일을 택해 숙영지 부근의 이웃과 공동 작업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모두 털깎는 도구인 가위를 지참한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털깎기를 하면 양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만약 길일에 날씨가 좋지 않다면, 양 1마리에게 가위를 대어 의례적인 가위 소리만 내고 날씨가 좋은 다른 날 털을 깎는다.<sup>12)</sup> 털을 깎고 있을 때 온 사람은 “가위는 날카롭고 깎은 양의 수는 10만이 되라”라고 축원하면 주인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라”라고 답한다. 깎은 양털을 막대기로 두들겨 엉킨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양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방문한 사람은 “양털은 비

10) 몽골의 5축 중 뜨거운 입김을 가진 가축, 즉 “할룽 호쇼테 말”은 양과 말이고 차가운 입김을 가진 “후이텐 호쇼테 말(Hüiten Hushuutei Mal)”은 소, 낙타, 산양이다. 몽골인들은 이들 중 할룽 호쇼테 말을 더 존중하고 가치있게 평가한다.

11) 장장식, 『몽골민속기행』, 서울, 자우출판, 2002, pp.44-46.

12) Ч.Аръяасүрэн, Х.Нямбуу, Монгол ёс заншлын дунд тайлбар толь, Хүүдий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Б, 1991, p.259.

단이 되고 두드리는 막대는 힘줄이 되어라”고 축원한다. 짧은 털과 긴털을 적절히 배합하여 넓게 펴고 각 겹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겹겹이 쌓은 다음 여러 겹의 양털을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 그런 다음 대형 가축으로 하여 끌어당기게 하여 압축시키면 새 펠트가 완성된다.<sup>13)</sup> 완성된 펠트는 몽골인들의 가옥인 게르를 덮는 천과 게르 바닥의 한기를 막아주는 깔개 역할을 하였으므로, 몽골인들의 住生活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몽골인들의 식생활은 가축으로부터 얻은 고기, 그리고 가축의 젖과 유제품이 주식을 이루고 있다. 이들 가축의 고기를 빨간 음식 즉 올랑 이데(Ulaan Idee)라고 한다. 몽골에서 가축의 도살은 흔한 일은 아니다. 가축은 목축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축을 도살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었다. 또한 몽골인들은 양을 도살할 때 양의 배를 직접 자르는 것을 금기시하였으며, 죽인다거나 도살한다는 직접적인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양을 준비하자(Honi Tüküürük)”, “양을 이용하자(Honi Bajaak)”, “국을 마시자(Shül uhk)” 등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양을 도살하여 식용으로 하지만 양을 사랑하는 마음에 직접적인 말을 피하는 것이다.<sup>14)</sup> 또한 양의 도살과정에서 한 방울의 피도 바닥에 흘리지 않고 도살하는데, 이러한 도살법은 칭기스칸이 제정한 법령인 야사(Yasah)에 기초한 것으로 전통시대에는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았다. 도살하는 양도 늙어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어미 양이나 종양 또는 가족 모두를 위해 몸집이 큰 거세 양을 도살하였다. 올랑 이데인 고기류는 몽골인들이 혹독한 겨울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음식이라 할 수 있다. 가축의 젖과 유제품을 하얀 음식 즉 차강 이데(Chaghan Idee)라고 하는데, 차강 이데는 가축이 새끼를 낳는 봄부터 여름 초가을까지의 주식이다. 양젖은 맛있고 기름지며 무겁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젖은 피혈병 치료제로 쓰일 만큼 몽골에서 쓰임새가 많은 젖이다.<sup>15)</sup>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하였던 한국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농경의 과학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 불가결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민족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속담에 의하면 소는 ‘농가의 조상이다’ 또는 ‘소가 반 재산이다’라고 하여 농가에서는 소를 조상같이 존중하고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소에게 한 말은 안나도 妻에게 한말은 난다’고 하여 소가 자신의 부인보

13) 경기도 박물관, 『초원의 대서사시-몽골 유목문화』, 용인, 경기도 박물관, 1999, pp.44-50

14) А.Пунсаг, Монголчуудын уламжлалт цээрийн ёс, Соёмбопринтинг ХХК, УБ, 2003, p.26.

15) 박원길,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서울, 민속원, 1999, p.65.

다 신중함을 칭송하고 있다. 또한 ‘소같이 벌어 쥐같이 먹어라’와 ‘소는 하품 밖에 버릴 것이 없다’ 등의 속담은 소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에서 소는 인간에게는 한없이 유익한 존재로 인식하여 왔다. 반면 소의 속담과 관련하여 어리석거나 둔하고 고집스러운 동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몽골의 양과 같이 한국의 소는 풍요를 상징하고 농경민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매개체로 인식되어 왔다. 새해가 되면 정월의 첫 번째 축일(上丑日)인 ‘소의 날’을 소의 명절로 취급하여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쇠죽에 콩을 많이 넣어 잘 먹였다. 또한 상축일에는 도마질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쇠고기로 요리할 때 주로 도마에 놓고 썰었으므로 이 날만은 이러한 행동을 삼간다는 뜻에서 도마질을 꺼렸다. 또한 그해 풍년이 들 것인지를 점쳐 보는 방법으로 ‘소밥주기’가 있다. 몽골인들이 양에게 주식인 젖을 먹여서 1년 동안의 목축의 흥망을 점쳤듯이, 상축일에 밥과 나물을 키 위에 상처럼 차려서 소에게 준 뒤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라 점을 쳐보기도 하였다.<sup>16)</sup> 그리고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소가 울면 그 해 행운이 들고 농사가 잘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외에 소가 잘 자라는 집의 처녀를 며느리로 삼으면 집안이 잘 된다고 믿었다. 또 우연히 쇠똥을 밟으면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였다.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관습에서 한국의 관동과 관북지방에서는 나경을 행하는 습속이 있었다. 나경이란 정월 대보름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숫총각이 木牛나 土牛인 擬牛를 몰고 밭을 갈며 풍년을 비는 민속이다.<sup>17)</sup> 이것과 관련하여 경남 창녕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서까래로 소의 머리 모양을 한 인조우를 만들어 서로 싸우게 하는 쇠머리대기놀이를 하였는데 모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한국 소와 몽골 양의 출산에 관련된 관습과 금기조항

임신이란 말은 고대 몽골어에서 쌍둥이 또는 둘이란 말에서 나왔다. 현대 몽골어에서는 임신을 헐 훈드(Hül Hünd, 다리가 무거운) 또는 비에 다브하르(Bie Dabhar, 이중 몸), 비에 툄가르(Bie Tulgar, 새몸) 등으로<sup>18)</sup> 표현하며 직접적인 표현인 ‘임신했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반면 가축의 임신은 헬테(Heeltei, 태아를 가진) 또는 헬 툄레흐(Heel Tüüleḥ, 출산

16) 具美來,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1995, p.215.

17) 배도식, 소에 얽힌 민속, 『민속학연구』 제2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5, p.231.

18) 몽크바트, 민하영, 윤은숙, 몽한 태교 관습 비교 연구 시론-임산부에 대한 관습, 규정, 금기조항을 중심으로-, 『江原人文論叢』 제11집, 춘천,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p.226.



하다) 등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헬은 가축의 태아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지만 13세기에 기술된 『몽골비사』에서는 사람의 태아에 대해서도 헬을 사용하기도 하였다.<sup>19)</sup>

몽골에서 가축은 대체로 여름의 마지막 달에서 겨울의 마지막 달까지 임신한다. 18세기 칼카(Kalkha)몽골에서 낙타와 소는 봄의 중간 달과 마지막 달에, 양은 겨울의 첫달에 출산하였다. 동몽골지역에서는 봄의 중간 달에 새끼를 낳기도 하였다. 오늘날 몽골에서는 주로 봄에 새끼를 낳고 있는데, 이것은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풍습이다.<sup>20)</sup> 양의 출산 기간은 6개월로서, 1년에 2번 정도 임신을 할 수 있으나 양의 건강상태나 생육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개는 1년에 1번 출산하게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9월 말에 임신하여 4월에 출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후가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초지의 상태가 좋은 항가이 아이막(Hangai Aimag)같은 경우는 이 보다 이른 시기인 3월에 출산하기도 한다. 대체로 양 한 마리는 7번에서 8번 정도 출산을 하고 이후에는 도살하여 식용으로 사용한다. 몽골 목축민들에게 種羊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종양의 선택이 양의 번식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부터 신중하게 종양을 선택하여 왔다. 종양 선택의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두 번째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새끼의 질도 좋다”는 속담에서도 나타나듯이 양의 크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기본적으로 새끼의 품질을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양의 색깔은 반드시 검은 색 머리에 흰색 몸을 가진 양을 선택한다. 이것은 고대사회로부터 정해진 관습으로 검은 머리에 흰색 몸의 양은 길상을 의미한다. 또한 몽골인들은 검은색과 흰색이 섞이면 산양의 색깔인 회갈색이 된다는 인식에서 검은 색 머리에 흰색 몸을 가진 양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검은 색 머리에 흰색 몸을 가진 양의 털은 몽골인들의 이동식 가옥인 게르를 덮는 펠트의 색을 아름답게 해준다고 믿고 있다. 네 번째 칼카 몽골에서는 뿔이 없는 양을 종양으로 선택하고 서부 몽골에서는 뿔이 있는 양을 종양으로 선택하는데 이것은 뿔이 있는 것이 야생의 산양에 가깝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선택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양의 성격이 강하거나 사나운 성격의 양은 피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양을 종양으로 선택한다.<sup>21)</sup> 종양의 선택은 양떼의 번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몽골인들

19) 吳人惠, 『성행위, 『초원의 대서사시-몽골 유목문화』, 용인, 경기도 박물관, 1999, p.61.

20) С.Бдамхатан, БНМАУ-ын угсаатны зүй,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Б, 1987, p.55.

21) Д.Базарцир, Б.Чинбат, С.Чий рэв-Адзая, БНМАУ-ын малчидын нүүдэл,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은 새해의 첫 명절인 음력 1월 1일의 차강 사르에 종양을 선택하는 의식을 행한다. 차강 사르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축일 또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축일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sup>22)</sup> 성대히 치루는 명절이다. 이 날 수호신에게 절을 하고 난 후 돌아와서 한 마리 새끼양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젖을 먹인 다음, 거세시키지 않고 종양으로 삼는 목축민의 축제를 하는데 이것을 칼카 몽골인들은 “양 새끼를 희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sup>23)</sup> 이러한 신중한 과정을 거쳐 선택된 종양은 10월 초가 되면 2무리로 나누어 하루씩 교대로 교배시킨다. 몽골에서 대부분 가축들의 임신기는 가을과 겨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이 시기를 대비하여 좋은 초지를 찾아 멀리까지 이동하였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산의 능선이나 남사면에서 방목하여 풀을 뜯게 하고, 태아가 커져서 출산에 가까워지면 완만한 산의 비탈에서 방목하였다.<sup>24)</sup> 또한 임신한 가축을 때리는 일을 매우 금기시되었다. 임신한 가축을 때리면 겨울에 폭설이 내린다고 믿었는데, 이로 인해 가축들이 생존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여 금기시하였다.<sup>25)</sup>

몽골에서의 봄은 가축이 새끼를 낳는 계절이며 각종 가축의 젖과 유제품이 흔해지는 풍요로운 시기이다. 임신부의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표시를 “김새가 있다”라고 표현하여 임신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을 금기시하고 있으나 가축의 출산에서는 이러한 금기조항 없다. 가축의 출산은 “투룰르흐(Türülüh, 낳게 되다)”라고 하거나, 태아의 각 가축의 나이에 맞는 표현으로 말은 “오나갈라흐(Unagalah)”, 낙타는 “보트골로흐(botgolah)”, 소는 “토갈라흐(Tugallah)”, 양은 “호르갈라흐(Hurgalah)”, 산양은 “이쉬글레흐(Ishgleh)” 등으로 표현한다.<sup>26)</sup>

새끼양이 태어나면 목축민은 하나의 천막을 세우고 그 안에 새끼 양과 어미 양이 휴식하게 한다. 그러나 겨울과 같은 추운 시기에는 새끼 양들은 몽골인들이 거주하는 게르 안에서 머무르면서, 마치 산모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듯 부인들은 새끼 양을 천으로 싸고 안아서 기른다. 이러한 풍습은 몽골인들이 가축을 자신의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음<sup>27)</sup>을 보여주는 것이

газар, УБ, 1987.

22) 이평래, 몽골의 차강 사르(신년) 오보제, 『민속학연구』10,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2, p.141.

23) 게.강토그토흐, 몽골의 세시풍속, 『몽골의 무속과 민속』,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원 민속학연구소, 2001, p.301.

24) С.Бдамхатан, 앞 책, p.56.

25) А.Пунсаг, 앞 책, p.26.

26) 吳人惠, 『성행위, 앞 책, p.62.

27) 鳥居人類學研究室編, 『土俗學上より觀たる蒙古』, 서울, 民俗苑, 1992, p.999.

다.

몽골인들이 양의 출산을 알리고 축원할 때 주로 양의 젖을 바치는 풍습을 행한다. 즉,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서 수가 증가하기를 기원하고 이와 더불어 유제품이 더 풍부해지기를 기원하면서 길상을 의미하는 흰색 젖의 특상품을 하늘 또는 땅에 바치는 행사를 거행한다. 양이 출산은 겨울 내내 굶주려 있던 가축과 목축민들에게 흰색의 젖과 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목축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축제이다. 따라서 몽골의 목축민들은 가축의 출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행위로 출산으로 말미암아 얻은 젖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를 몽골에서는 “목축민들이 가축을 얻는 축제(Malchin ardin tüliin bayar)”라고 한다. 집안에 가루로 된 향을 피워놓거나, 가루로 만들지 않은 향은 썩과 섞은 뒤 어름(Ürüm), 처즈기(Chüchgii) 등의 최상의 유제품을 혼합하여 촌락의 서북쪽이나 동서남북 방향에 놓고 향을 피운다.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은 몽골인들이 예부터 불을 신성시하고 숭배해온 것과 관계된다. 제일 먼저 새끼를 낳은 가축으로부터 짠 초유를 나무통에 담고, 여자 2명이 한 사람은 왼손으로 나무통에 담은 초유를 들고, 나머지 한명은 차찰(Chachal)이라 불리는 나무 바가지에 초유를 조금씩 담아서 99의 하늘, 77의 유제품 주인, 산과 물에게 젖을 뿌린다. 이런 식으로 집과 가축의 축사 등을 해가 떠서 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젖을 뿌리는 의식을 진행한다. 이때 하늘과 물의 주인인 신에게 최상의 젖을 바치면서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시를 읊는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칸인 영원한 푸른 하늘  
칸의 지역의 물, 무수히 많은 별들  
황금색의 태양과 황금색의 별  
행복한 날 좋은 달을 찾아 뿌립니다.  
젖을 뿌리는 이유는  
푸른 하늘에서 운명을 받아 태어난 검은색 양의 젖  
아무도 먹지 않고 오직 새끼양만 먹었습니다.  
젖을 뿌리는 이유를 묻는다면  
저의 흰색 양의 재앙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가득찬 골수를 바칩니다. 맛있는 흰 젖을 바칩니다.

젖을 뿌리면서 위의 시를 읊으면 또 다른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갑자기 발생하는 재앙, 죽음, 도둑, 가뭄 등이 없어질 것이다. 초지와 물은 풍부하고, 뇌우와 많은 비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sup>28)</sup>

이렇게 젖을 바치는 의식을 행한 후 집에 들어와서 준비한 젖과 유제품을 나누어 먹었다. 양은 젖을 뿌리는 일을 여자들이 담당하지만, 말의 경우는 남자들이 하는데, 이것은 고대에는 남자들이 말 젖을 짚어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그 해 제일 먼저 새끼를 낳은 양으로부터 초유를 짜서 한번 끓이고 나서 말린 후 향을 피우고 불경을 읽은 후 새로 얻은 새끼양을 축복하며 말린 초유를 먹었다.<sup>29)</sup> 초유는 가축의 중요한 자양분 일 뿐만 아니라 몽골 유제품 중 최상품으로서 몽골에서는 특히 그 해 맨 처음 출산한 양의 초유를 길상으로 보아 신께 바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몽골인들은 흰색을 길상으로 검은 색은 흉조로 여겨 왔는데, 흰색은 풍요와 안정의 상징으로 인식하여 왔다. 특히 가축의 젖과 유제품은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젖과 유제품을 버리는 것을 금기시하였다.<sup>30)</sup> 몽골에서 양의 출산은 새로운 새끼들의 탄생으로 가축의 숫자가 증가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목축민들의 중요한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어미 양으로부터 얻어지는 새로운 젖으로 말미암아 목축민들의 식생활에서 유제품이 증가하는 중요한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이와 같이 양의 출산으로 새로운 한해의 목축을 시작하였던 몽골인들은 양의 젖을 신들에게 바침으로서 새로 태어난 양의 건강과 한해의 목축이 번성하기를 기원하였다. 젖을 뿌리는 풍습은 양의 출산을 축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오늘날에도 행해지는 목축민들의 중요한 의식이다.

또한 몽골인들은 봄에 양이 새끼를 낳은 뒤 축복된 좋은 날을 고르고 축사에서 새로 밧줄을 만들어 가축의 젖을 조금씩 발라서 신성하게 하고, 집 오른쪽에 새끼 양과 산양을 묶어 놓는다. 밧줄이라는 것은 유목민과 목동들이 봄과 여름철에 새끼 양과 산양을 묶어서 젖을 짜기 위해 말총, 양털 등을 엮어서 만든 견고한 줄이다. 새끼 양과 산양의 목을 묶고 밧줄의 꼬임 사이로 넣어서 고정시킨다. 이렇게 밧줄에 새끼 양과 산양을 묶는 것을 허그누(Hügnü)라고 하는데 몽골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부터 지켜온 관습이다.<sup>32)</sup> 새끼 양과 산양의 허그누 기간은 봄의 마지막 달의 초반부터 시작하여 여름

28) Х.Сампилдэндэв, Малчин ардын зан үйлийн уламжлал,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Б, 1985, р.38-40.

29) Ч.Аръяасүрэн, Х.Нямбуу, 앞 책, р.258.

30) 留金鎖, 『蒙古族通史』上卷, 呼和浩特, 民族出版社, 2000, pp.434-436.

31) Ч.Аръяасүрэн, Х.Нямбуу, 앞 논문, р.258.

32) Ч.Сонгино, Малын тоног хэрэгсэл, Соёмбоо,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Б, 1991, pp.56-58

의 첫 달의 보름까지이다. 새끼 양과 산양을 허그누 하는 날은 새 차를 끓이고, 상을 차리고, 이웃을 초대하여 가장 먼저 낳은 새끼 양의 허그누 의식을 행하고, 축복하는 말을 나누면서 “뱃줄 채우는 새끼 양이 있는, 초원을 채우는 가축이 있는, 가족부대를 채우는 아이락(Airag)이 있는, 재산 가축이 많아 지기를 기원한다”<sup>33)</sup>라고 축원한다. 몽골의 목축민들은 이러한 허그누를 통해 하늘의 자비로 말미암아 새끼양이 잘 자라고 가축들이 번성하게 된다고 믿었다. 또한 興安嶺 일대의 몽골인들은 가축이 어렸을 때 가축의 귀를 자르는 풍속을 가지고 있다. 4,5월에 갓 태어난 새끼 양들의 왼쪽 귀를 가로로 약간 자르는데 이렇게 하면 새끼 양이 건강하게 자라며 가축이 번창<sup>34)</sup>한다고 믿었다. 이외에 가축의 번식과 관련된 금기로는 가축을 매매하거나 사역할 때 말의 재갈을 물려서 보내지 않는데, 재갈을 물려 보내면 가축이 번식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또한 가축의 고기, 가죽, 털 등을 매매할 수 있지만 가축의 뼈만을 매매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순수 유목민의 경우에는 유제품도 매매하지 않는데, 이것은 가축의 뼈와 유제품을 매매하는 것은 자신의 행운을 파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기시 되었다.<sup>35)</sup>

소는 임신한지 280일 정도 되면 분만하게 되는데, 갓 태어난 소는 물기를 닦아주고 난 뒤 2-3시간 지나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새끼를 분만한 어미 소는 새끼와 함께 나온 태를 씹어 먹는다. 어떤 주인은 어미 소가 태를 잘 먹으라고 칼로 잘라서 소금을 조금 뿌려주기도 한다. 소가 태를 도로 먹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영양보충을 위한 본능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몽골에서는 소가 새끼를 낳은 뒤 어미 소의 태를 끓여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거나 아이들에게 주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게 한다.<sup>37)</sup> 소가 새끼를 낳으면 집안에 아이를 낳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문에 금줄을 치거나 소나무를 걸어 잡귀의 진입을 막는다. 경기도 이천지역에서는 금줄 가운데 고무신 한 짝을 걸어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또는 원새끼 줄에 백지를 매달아 1-3일간 대문이나 외양간 앞에 놓는다. 이는 금줄로서 상가집에 다녀온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만약 송아지를 낳을 때 부정한 사람이 출입하여 송아지가 젖을 빨지 못하면 무당을 불러다 『우마대장경』을 외우고, 보통 밥과 반찬을 차려 놓고 구정물을 떠놓고 소 삼신한테 이런 저런 일이 생겼으니 낮게 해달라고 빈다. 한편으로 소

33) 계.강토그토흐, 몽골의 세시풍속, 앞 책, pp.303-305.

34) 鳥居人類學研究室編, 앞 책 p.1002.

35) 札奇斯欽, 『蒙古文化與社會』,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92, p.142.

36) 배도식, 앞 논문, p.218.

37) Ч.Аръяасүрэн, Х.Нямбуу, Монгол ёс заншлын дунд тайлбар толь, Хүүдий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Б, 1991, p.258.

가 새끼를 낳는데 고생하고 힘이 들어 할 때는 밥을 해놓고 소 삼신에게 빈 후 소에게 그 밥을 주기도 한다. 소와 관계되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좋은 날을 택한다. 이것을 ‘소 삼신이 동정한다’라고 하는데 구유를 들여 놓거나 외양간을 고칠 때도 길일을 택하여 일을 처리한다.<sup>38)</sup>

몽골에서의 양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가축이다.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에서도 소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축으로서 강원도에서는 여러 가지 對聯과 함께 외양간 들보에 외양간 신에게 바치는 백설기를 매달아 다산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지역에서는 10월 상달에 시루떡과 북어 한 마리를 차려 소의 건강과 다산을 빌었다.<sup>39)</sup>

소의 출산과 관련된 금기조항은 다음과 같다.

- 소가 새끼 낳은 뒤 여자가 보면 나쁘다.
- 송아지 낳을 때 곡식을 내가지 않는다.
- 점박이소를 기르면 그 집안에 재수가 없다.

소의 출산이 여성과 특별한 기피관계라기보다는 이 일들이 농가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므로 부정을 가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민속에서 여성은 대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마을 중대사는 물론 집안의 중대사에서 공식적으로는 참여와 접근이 금기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송아지를 낳을 때 곡식을 내가지 않는 것은 앞으로 송아지가 갖게 될 중요자산으로서의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송아지를 낳는 행위는 자산의 증식을 의미하는 반면 곡식을 내가는 것은 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가 출산할 때 곡식을 내가는 행위는 자산의 증식 가능성을 상쇄시키는 행위이므로 ‘유사한 행위는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유감 주술적 차원에서 보면 집안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그 실제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금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40)</sup> 한국의 소는 주로 황갈색으로 털이 짧은 것이 많은데, 이 누런 황소이외의 점박이소나 검은 소 잡색 소 등은 모두 불길한 징조로 여겼으므로 점박이소의 출생을 꺼리고 금기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소의 출산과 관련된 길조어는 “자기 집 소가 쌍 송아지를 낳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있는데, 쌍 송아지의 출

38) 천진기, 『문화와 비밀을 푸는 또 하나의 열쇠, 한국동물민속론』, 서울, 민속원, 2003, p.127.

39) 정연학, 소(耕牛)에 나타난 민속학적 의미와 상징-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제6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9, p.472.

40) 한양명, 소의 民俗과 象徴, 『中央民俗學』第6號, 中央大學校 韓國民俗學研究所, 1994. 12.15, p.48.

산은 직접적으로 재산의 증식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길조로 받아 들여졌다.

#### 4. 결론

목축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몽골에서 양은 목축민들의 특별한 애정과 존중을 받아온 몽골을 대표하는 가축이다. 양이 이처럼 몽골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목축민인 몽골인들의 의식주를 포함하는 일상생활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에서 소는 生口라고 불리 정도로 농경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몽골의 양과 한국의 소는 풍요를 상징하고 농경민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매개체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집안에 아이를 낳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문에 금줄을 치거나 소나무를 걸어 잡귀의 진입을 막는 등의 의식을 행하였다. 한국에서의 소의 출산은 재산의 증식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식이였다. 따라서 사람의 출산과 같이 외부인과 잡귀의 출입을 금지하는 不淨의 금기조항이 발달하였다. 전통시대 여성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민간의 중요한 일에 참여를 금지시키는 對女性禁忌에 따라, 소의 출산에서 여성의 출입은 금지되었다. 또한 소가 출산할 때 곡식을 내가는 행위는 자산의 증식 가능성을 상쇄시키는 행위로 간주하여 금기시하였다. 몽골에서 사람의 출산에서는 금줄을 치고 빨간 천을 달아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산에 관련된 단어들도 모두 금기시 되었다. 이것은 몽골 유목의 세계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사망은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일이라 믿는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다. 몽골인들은 아이를 얻는 것을 백만 천만개의 쌀알들 중, 바늘 위에 하나의 쌀알을 올려놓는 것처럼 매우 힘든 일이라 믿어왔다. 따라서 인간의 출생에는 금기조항들이 발달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목축의 세계에서는 가축의 출산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기에 양의 출산에서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거나 출산이란 단어를 금기시 하지 않는다. 다만 몽골에서는 가축의 번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양의 선택과 초원의 굶주림을 해결시키는 초유를 매우 신성시하여 이것들과 관계된 금기조항들이 발달하였다. 종양의 선택은 몽골인들의 새해 첫 명절인 음력 1월 1일의 차강 사르에 행해졌는데 이 날 수호신에게 절을 하고 난 후 돌아와서 한 마리 새끼양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젖을 먹인 다음, 거세시키지 않고 종양으로 삼는다. 이러

한 의식을 “양 새끼를 희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양이 이 의식으로 깨끗해졌음을 중요시하고 부정한 것을 금기시하였다. 그 해 첫 번째로 출산한 양의 초유를 나무통에 담고, 초유를 차찰에 조금씩 담아서 하늘과 대지에 뿌림으로서 대자연의 은혜를 빌며 가축의 번식을 기원하였다. 몽골에 불교가 전파된 후에는 초유를 말린 후 불경을 외운 후 가족들이 초유를 먹는 풍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몽골에서 양의 출산은 새로운 새끼들의 탄생으로 가축의 수가 증가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목축민들의 중요한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어미 양으로부터 얻어지는 새로운 젖으로 말미암아 목축민들의 식생활에서 유제품이 증가하는 중요한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양의 출산으로 새로운 한해의 목축을 시작하였던 몽골인들은 양의 젖을 신들에게 바침으로서 새로 태어난 양의 건강과 한해의 목축이 번성하기를 기원하였다.

몽골의 목축민들은 새로 태어난 새끼양을 마치 산모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듯 부인들은 새끼 양을 천으로 싸고 안아서 기른다. 이러한 풍습은 몽골인들이 새끼양을 자신의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애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송아지가 젖을 빨지 못하면 무당을 불러다 불경을 외우고 마치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듯이 소 삼신에게 빌었는데 역시 소에 대한 농경민들의 애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과 몽골에서는 가축의 출산과 관련하여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에게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풍습과 금기조항에서 한국인들이 가축의 출산시 淨, 不淨의 관념을 중요시하였다면 몽골에서는 종양의 선택과 새로 태어난 새끼양을 축하하는 의식을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초유와 유제품을 신성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북아시아 유목적 태반을 공유하고 있는 몽골과 한국의 목축 관행의 상사 및 상이점, 스텝과 농경지대라는 목축환경의 상이성과 그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온 목축 관행의 역사적인 변용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밝혀가는 본격적인 연구과제는 시론 차원의 이 논문에서는 일단 문제로만 제기해 두려 한다.